

令和8年度 第1回 京都大学大学院人間・環境学研究科 修士課程入学試験問題

第2外国語試験 科目名 (朝鮮語)

(注意) 複数の設問がある場合、解答は、設問 (ローマ数字のⅠ、Ⅱ……) ごとに別の解答用紙を用いること。
ただし、設問の中で解答用紙に関して別途指定がある場合は、それに従うこと。

Ⅰ 次の朝鮮語文を日本語に訳しなさい。(20点)

교토대학의 인문학 전통을 회고해 볼 때 ‘교토학파’(京都学派)라고 하는 독특한 학문적 유산에 주목하게 된다. ‘교토학파’에는 두가지 중요한 조류가 있는데, 하나는 니시다 기타로(西田幾多郎)의 철학이 기폭제가 되어 형성된 철학의 ‘교토학파’이고, 또 하나는 나이토 고난(内藤湖南)등이 중심이 되어 형성된 동양사학의 ‘교토학파’이다. 철학과 동양사학의 영역에서 전개된 두 개의 ‘교토학파’는 그 이론의 치밀함과 창조성에서 교토대학뿐만 아니라 일본의 인문학 전통에 있어서의 커다란 성취라고 할만하다. 특히 철학영역의 ‘교토학파’는 서구중심의 철학적 사고에 대한 대안으로서 일본철학계를 넘어 세계철학계에서도 폭넓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상과 같은 풍부한 인문학적 성취에 비추어 본다면 한국에 대한 인문학적 관심은 비교적 약세라고 할 수 있다. 언어교육의 경우를 보더라도,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함께 수많은 일본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넘어 폭증하고 있는 것에 비해, 교토대학에서의 증가세는 비교적 완만한 편이다. 그것은 외국어 과목에 대한 다소 보수적인 이수제도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한국어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학문의 언어’로 취급되지 않는 학문적 분위기도 암암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된다.